

고고학적 탐구 서사와 역사 철학적 알레고리

— 최인훈 소설 『서유기』의 텍스트 생성 원리 연구 —

김정관*

— || 차례 || —

1. '자아 찾기'의 서사 형식과 방법
2. 고고학적 탐구와 알레고리 형식
3. 탐구 방법의 두 층위
- 3.1 개체 발생적 층위의 탐구 서사
- 3.2 계통 발생적 층위의 탐구 서사
4. 상징적 상상력을 위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최인훈의 예술관과 역사 철학적 사유가 텍스트 생성 양식과 미적 구성 형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현된 작품으로 『서유기』를 선택하고, 텍스트 생성 원리인 '고고학적 탐구 방법'과 '알레고리적 기호 형식'의 기능과 의미를 밝히며 이 작품의 문학사적 위상과 가치를 재고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유기』는 로맨스(romance) 양식의 탐구적 환몽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과 역사의 심층에 과묵한 정신사적 원체험의 의미를 알레고리적 형식 기법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천착해 들어간 반리얼리즘 소설이다. 소설의 서사를 추동하는 '고고학적 탐구'의 의미 기능은 개인의 심층에 묻혀 있는 역사적 과거의 왜곡된 의미상을 발굴하고, 또한 이 작업의 끝에서 발견된 '원초적 경험'의 이미지를 민족의 집단 무의식적 소망으로 재신화화하여 훼손된 역사와 삶을 회복시키려는 상징적 소설 미학을 포괄한다.

이처럼 개인적 층위와 역사적 층위, 과거의 시대와 현재의 시대의 변증법적 교호 작용을 통해 알레고리적으로 이끌어낸 인간과 역사적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평이야말로

*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kumkwann@hanmail.net

로 『서유기』의 고고학적 상상력이 성취해낸 현대 소설적 가치가 될 것이다.

주제어: 고고학적 탐구, 알레고리, 역사 철학, 원초적 경험, 재현 표상, 환몽 구조, 상징적 상상력

1. ‘자아 찾기’의 서사 형식과 방법

최인훈에 의하면 예술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시간, 이익 사회에 묶인 인간의 분열된 분석론적 시간을 신의와 사랑의 시간 속에서 이겨내어 되찾아진, 또는 꿈꾸어진 공동체의 시간”¹⁾이며, “고대 문학에 울리는 기조음인 잃어버린 낙원에의 그리움을 추구하는 집단 무의식이 표현된 표상”²⁾이다.

이러한 최인훈의 예술관은 문명의 파괴력에 의해 공동체의 삶이 붕괴된 위기 시대의 경험과 고민에서 형성된 역사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회 변혁과 전쟁으로 대표되는 인류사적 문명의 발전 과정 속에서 역사의식의 연속성이 끊기고, 자아가 훼손되고, 완결된 문화의 원형을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문학은 예술의 내적 구조를 통해 잃어버린 역사와 시간을 탐구하여 자아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킴으로써 구원과 각성을 주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현대의 위기의 본질적인 특징을 그 위기가 빚어내는 문학작품에 비추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재난과 충격에 의한 결핍이 클수록 원형 회복에 대한 욕망 또한 증대되는 우리 시대의 정신역학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추상 작업에서 생산된 문학 작품 속에 서인 것이다.³⁾

루카치(Georg Lukács)가 본래적 삶의 총체성이 상실된 시대의 서사 양식을 소설로 규정하고, 소설에서 “삶의 외연적인 총체성이 주어지지 않고 또한

1)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최인훈 전집 12』, 문학과 지성사, 1994, 208면.

2) 위의 책, 194면.

3) 김정관, 「이상과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욕망 형식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26호, 국제언어문학회, 2012, 104면.

삶에 있어서 의미 내재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총체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시대의 서사시”⁴⁾를 기대했듯이, 최인훈은 공동체의 질서와 보편적 감각이 충만했던 시절의 서사 양식을 고전 문학에서 찾고, 고전 문학이 품고 있는 ‘잃어버린 낙원에의 추구하고 그리움’을, 공동체 의식이 분열되고 문화의 원형이 상실된 시대를 탐구하고 구원하려는 소설의 기본형으로 삼고자 한다.

역사라는 것을 연속적 전체로 느끼는 이 감정이 인간 생활의 근본 감각이며, 생명력과 이성의 모태다. 그것은 인간 생활을 전체로서 질서화하고 방향을 주기 때문인데, 고전 문학은 이런 근본 감각 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감각이며, 집단생활을 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의 직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경우에는 학습과 생활을 통해 얻어지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표기되는 집단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변화를 겪고 지양되기는 할망정 끊어져서는 안 된다. (...) 현대 문학은 이 인간의 조건을 확인하고 구원이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조건을 승인함으로써, 고전 문학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고귀함을 얻는다. 그것은 우주와 자기를 연결시키고 그것들과 화해하는 것이다.⁵⁾

이렇게 함으로써 최인훈의 문학은 현대의 역사에서 발생한 자아 분열과 소외의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인 감각과 존재 방식 속에서 조망하며, 고전소설의 양식상의 전위를 통하여 예술의 본질과 현대적 기능을 살리고 공동체적 역사의 문맥을 잇는다.

『광장』(1960) 이후, 최인훈은 분열된 개체의 자아 찾기의 편력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집단 무의식의 억압된 소망을 동시에 충족시켜 보려는 본격적인 시도를, 주로 고전 서사의 ‘편력 로맨스(romance) 양식’⁶⁾을 패러디한

4) Georg Lukács, 반성환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70면.

5) 최인훈, 앞의 책, 197-201면.

6) ‘편력 로맨스(romance)’적 서사 양식의 구상은 『광장』을 비롯해 『가면고』, 『구운몽』, 『서유기』를 포괄한다. 이 소설들의 심층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환상적 비전에 힘입어 여행 구조 자체가 주인공의 소망 충족을 향한 무의식의 여로를 은유하며, 자아 구원을 꿈꾸는 집단의 심층의식의 알레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로맨스 양식을 텍스트

환상적 소설을 통해서 추진한다. 특히 『구운몽』(1962)과 『서유기』(1966)로 대표되는 패러디 양식의 소설에서 구사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허물기’, ‘현재와 역사적 과거의 경계 허물기’, ‘개체적 자아와 계통 발생적 집단 심리의 경계 허물기’ 등의 의도 및 기법은, 일반적으로는 패러디의 형식 구조에 내재된 아이러니와 역설의 수사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특수하게는 전기소설(傳奇小說)의 로맨스(romance)적 환상 세계와 실제 세계의 대칭 구도에서 비롯된 ‘현실의 초현실성’이라는 알레고리적 의미 구조를 기능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인간 경험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화적인 패턴을 떠오르게 하는 경향의 문학 양식인 ‘로맨스(romance)’는 모든 문학 형식 중에서 욕망 충족의 꿈에 가장 가까운 것이며, 리비도(libido)를 탐구함으로써 리비도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기묘하게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⁷⁾ 그러므로 로맨스 양식의 문학 작품은 텍스트 자체가 정신분석의 대상이 되며, 특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주인공이 편력을 통해 자아를 찾고 총체성을 추구하는 최인훈의 소설은 한 마디로 로맨스적 양식을 원형으로 삼고,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구성 원리로 하고 있는 탐구적 서사의 성격을 지닌다.⁸⁾

생산의 원형을 삼고 있다고 하겠다. Gillian Beer, 문우상 역, 『로망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78면 참조.

7) Northrop Frye,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260쪽 참조.

8) 『서유기』는 『구운몽』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발상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과 역사의 심층에 파묻힌 정신사적 원체험의 의미를 알레고리적 형식기법으로 친착해 들어간 소설이다. 작가는 고전 『서유기』에서 로맨스적 모험구조의 형식들뿐만 아니라 그 심층에 퇴적되어 있는 ‘자아구원’에 대한 집단무의식적 소망이 만들어낸 의미구조를 패러디하여 전쟁으로 인해 분열되고 붕괴된 개인의 정신과 역사의 의미를 탐구하는 소설의 형식을 이끌어 내었다. 『서유기』는 유년기의 세계를 탐구하는 시간의 역전적 소급 여행 자체가 일종의 정신분석학적 알레고리로 읽히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서두에서 비유한 고고학적 탐구와 명백한 유사성을 나타내게 된다. 노드롭 플라이(Northrop Frye)의 신화비평에 의하면 로맨스(romance)에서 소망 충족을 위한 은유적 패턴을 이루고 있는 본질적 요소는, ‘모험과 편력’이라는 서사구조 속에 포함된 제의적 형식이다. 이 형식의 원리는 위험한 여행의 준비와 갈등을 나타내는 ‘아곤(agon)’, 필사의 투쟁 과정을 나타내는 ‘파토스(pathos)’, 주인공의 인지와 발견 혹은 소생을 나타내는 ‘아나그노리시스(anagnorisis)’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책, 368면

이러한 텍스트의 근본 의도는 개인의 억압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외상의 근저를 인식하는 ‘정신분석학적 치료 행위’와, 왜곡된 역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본질적인 모순의 근저를 파헤치는 ‘고고학적 원형 탐구행위’가 겹쳐져 있는 형국으로 작품 세계를 구조화시킨다.⁹⁾ 최인훈은 자아를 탐구하고 붕괴된 역사의 파편화된 혼란상을 발굴하여 복원하려는 소설의 창작 과정을 “고고학 입문 시리즈”(5쪽)라고 명명한 바 있거니와, 알레고리적 사유 방식과 의미 구도를 방법론적으로 전위시킨 이 ‘고고학적 탐구 행위’는 단순한 해석학적 은유의 차원을 넘어 작가의 예술관, 또는 역사 철학적 사고와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로 확장됨으로써 ‘고고학적 세계관’을 형성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고고학적 세계관의 궁극적 의미 기능은 역사적 과거의 왜곡된 의미상을 발굴하여 부정적으로 신화화된 경험 세계의 파괴적 폭력성과 부조리성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통해서 추적된 원초적 경험의 이미지를 집단 무의식적 소망으로 재신화화¹⁰⁾하여 왜곡된 역사와 삶을 회복시키려는, 한국적 정신 구조의 원형에 대한 문화사적인 탐구로 확장된다.

『서유기』는 이러한 탐구 과정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대표적 모델이 된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광장』에서 보여준 편력과 탐색의 서사 패턴을 새로운 형식을 통하여 잇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탐구”를 중심으로 한 주제와 발상법이 『구운몽』 및 『회색인』과 상호 텍스트성을 보이고 있으며, 『우상의 집』과 『회색인』, 『가면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원초적 장면의 트라우마¹¹⁾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최인훈 소설의 총화¹²⁾이며 그 본령을 보인 작

참조.

9) 최인훈은 “‘문화형’ 혹은 ‘문화적 원체험’을 찾아가는 자신의 문학 역정과, 자아를 탐구하고 붕괴된 역사의 파편화된 혼란상을 발굴하여 복원하려는 소설의 창작 과정을” 고고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행각하고 있거니와 이 개념은 원리적으로는 무의식을 탐구하고 트라우마의 원인을 분석하여 분열된 자아를 치유하는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을 은유하고 있기도 하다. 일찍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가를 폐허 속에 파묻힌 역사적 파편들을 재구성하여 원래 모습을 복원하려는 고고학자에 비유했다. Sigmund Freud, 정장진 역, 『빌헬름 예젠의 ‘그라디바’에 나타난 망상과 꿈』,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6, 239쪽 참조.

10) 본고 각주 30번 참조.

11) 최인훈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트라우마가 고착된 원초적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하

품이라고 하겠다.

『서유기』를 마지막으로, 소설의 장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희곡 창작으로 넘어간 최인훈 문학의 역정을 생각하면, 작가의 예술관이 바탕이 된 텍스트 생성 원리 및 원형이 전위적 형식 실험을 통해서 구현된 소설 창작의 최고치를 『서유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난해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논의를 꺼려 왔던 『서유기』에 대한 연구¹³⁾가 근간에 점차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지만, 작가의 예술관 및 역사철학적 사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한 논의는 작품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 있다. 관계된 장면이 반복해서 출몰한다는 것은 억압된 것이 회귀되는 강박적 충동 현상으로서 이는 작가의 무의식이기도 하고 텍스트의 무의식이기도 하다. 그것은 『회색인』과 『서유기』에서는 죽음과 구원의 이미지가 결합된 반공호 속에서의 성 체험으로 나타나며 『우상의 집』에서는 심적 충격 때문에 폭격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구하지 못하고 도망친 장면으로 드러난다.

- 12) 길경숙, 「최인훈의 ‘서유기’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80면.
- 13) 다양한 방향과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최인훈의 예술관 및 역사철학이 바탕이 된 텍스트 생성 원리를 통찰하지 못한 논의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작품의 심리 분석 내지 정신분석학적 비평을 했지만, 지나치게 이론적 틀에 의존하거나 형식적 분석에 경도된 나머지 작품의 미적 구조나 작가의 주제 의식과 연결시키지 못한 경우(윤대석,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읽기」, 『한국학 연구』 제1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환상적인 형식 기법과 미학적 특성을 고찰했지만 그것의 기호 발생론적인 원인과 사회·역사적 의미를 밝히지 않아 형식 분석내지 구조 분석에 그친 경우(황순제, 「최인훈소설의 환상기법 양상과 표현적 효과」, 『문학과 비평』, 1989. 겨울호), 최인훈의 역사철학적 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서유기』의 탐구 서사를 개인의 실존적·정신분석학적 트라우마 극복에 경도되어 해석한 경우(설혜원, 「최인훈의 몽유 소설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반대로 지나치게 정치적 이면 탐구의 서사로 해석하여 개체 발생적 트라우마에 대한 해명을 간과한 경우(함돈균, 「최인훈 ‘서유기’의 다성성과 아이러니 연구」, 『국제어문』 제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미적 근대성’이라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소설 형식의 기능 및 의미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작품의 특성을 통찰하여 사회적 콘텍스트와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보인 경우(문지현, 「최인훈 소설의 미적 근대성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는 최인훈의 예술관과 역사 철학적 사유가 텍스트 생성 양식과 미적 구성 형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현된 작품으로 『서유기』를 선택하고, 텍스트 생성 원리인 ‘고고학적 탐구 방법’과 ‘알레고리적 기호 형식’의 기능과 의미를 밝혀서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고 이 작품의 문학적 위상과 가치를 재고하려 한다.

2. 고고학적 탐구와 알레고리 형식

『서유기』는 본질적으로 『광장』에서 다루던 주제와 발상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과 역사의 심층에 파묻힌 정신사적 원체험의 의미를 알레고리적 형식 기법을 통하여 극단적으로 천착해 들어간, 최인훈의 난해한 소설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¹⁴⁾ 반리얼리즘 소설이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 그 발단에 메타텍스트적 자의식이 돋보이는 ‘고고학적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독립적으로 적혀 있다.

이 Film은 考古學入門 시리즈 가운데 한편으로, 최근에 발굴된 고대인의 두개골 화석의 大腦皮質部에 대한 의미론적 해독입니다. 이 화석은 분명히 상고 시대 어느 기간에 산 인간으로 짐작됩니다. 이 한편을 특히 고른 것은 최근의 발굴이라는 것뿐 아니라 한국화석의 일반적 특징인 황폐성과 무질서성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필름은 우리 고고학의 과제 전망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白眉篇이라 하겠습니다. 학적 결벽성이 강한 분에게는 邪道로 비칠지 모르나, 초보자를 위하여 어느 정도 원형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말할 필요도 없이 전혀 가설적인 조립입니다. 그런 탓으로 언제든지 재분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질이 좋은 수용성 접착제로 가볍게 이어놓았으며 化學處理·原形變改 등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 이 필름은 複寫體 자신의 성질상, 그리고 전기한 제작 방침에 따라 비교적 느린 템포를 썼으며 CLOSE UP을 끊임없이 삽입하였고, 동일장면의 반복 및 심지어는 영사기의 회전을 중

14) 송재영, 「분단시대의 문학적 방법」, 『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85, 324면.

단시적이고 중요한 화면을 정물사진으로 볼 수 있게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곧 필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서유기-최인훈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85, 5면-서두¹⁵⁾)

작품의 서두에 나타난 이 부분은 『서유기』의 본 줄거리와는 맥락상 관계없는, 텍스트에 대한 일종의 비평적 해석이며 작가 자신이 해설자를 가장하여 독자에게 작품이 품고 있는 알레고리적 의미를 해독하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암시해주는 안내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본 이야기가 ‘고고학적 연구’ 시리즈 중의 한 편을 영상화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독자가 소설적 환상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작품의 인공성과 허구성을 의식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일종의 ‘낮설게 하기’의 기법 내지 ‘소격효과’와 관계있는 이러한 형식이 노리는 의도는, 예상 밖의 문학적 장치를 통해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감정이입을 차단하면서 독자의 의식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작품 속에서 습관화된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¹⁶⁾ 그러므로 원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비유적 해석이기도 한 이 서언은 작품을 상투적이고 습관화된 시각으로 보는 태도를 차단하고 일상적인 시각 속에서 본래의 가치를 잃고 가려져 눈에 띄지 않았던 사물의 진실을 작품 속에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환기력을 조성시키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고고학적 방법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왜곡되고 훼손된 상태의 유물 속에서, 일상적인 시각으로는 통찰할 수 없는 역사적 의미상을 알레고리적으로 해독해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인류 역사를 “신이, 시간과 공간에 접하여 일으킨 열상의 무한한 연속”으로 보고, 역사 속의 인간 개체를 이러한 ‘역사의 지층에 파묻힌 신의 사생아의 화석’¹⁷⁾으로 해석하고 있는 최인훈의 역사 철학적 시각 속에서는 요컨대

15) 소설 『서유기』의 인용문은 참고문헌에 제시한 ‘최인훈, 『서유기-최인훈 전집 3』, 문학과지성사, 1985.’를 출처로 하며, 논문에서는 편의상 독립인용의 경우는 작품명과 쪽수만을, 본문 속의 부분 인용의 경우는 쪽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16) 이원양, 『브레이크 연구』, 두레, 1984 참조.

17) 최인훈, 『광장/구운몽-최인훈 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86, 335-336면 참조.

역사가 부조리한 신의(神意)와 인류의 고통이 반복되는 수난의 알레고리로 나타나며, 신의 사생아인 인간의식의 화석화된 풍경 속에는 또한 그러한 역사의 모습이 알레고리화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 의식의 반영물인 문학 작품이란 자연히 붕괴와 몰락의 파편과 잔해로 구성되어 있는 고통에 찬 인류역사의 의미 영상이 알레고리적 기호와 이미지로 구성되어 담겨 있는 것이 된다.¹⁸⁾ 그렇기 때문에 서언에서 소개된 ‘고고학적 방법론’은 “최근에 발굴된 고대인의 두개골 화석의 대뇌피질부”에 각인된 붕괴된 역사의 알레고리적 의미를 해독해내는 작업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다름 아닌 『서유기』라는 문학작품의 알레고리적 기호와 이미지 속에 담겨 있는 퇴적된 역사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비평 작업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고고학적 방법론’은, 불합리한 경험 세계로부터의 고통을 알레고리로 표현함으로써, ‘경험 세계의 합리성이 은폐하고 있는 비합리성의 공포스러운 폭력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어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는’¹⁹⁾ 모더니즘 예술의 미학적 패러독스에 대한 철학적 사유 방식이 된다.

이러한 논리는 독일 ‘바로크 비극’의 연구 결과 얻어낸 알레고리의 미학적 본질을 통해 아우라(Aura)가 붕괴된 현대 모더니즘 예술작품의 미학적 특성을 연역한 바 있는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사고와 최인훈의 고고학적 탐구방법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통해서 그 의미가 심화된다. 벤야민은 『독일 비극의 기원』(1928)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알레고리에서는 역사의 죽은 얼굴이 화석화(化石化)된 태고의 풍경처럼 보인다. 역사 속에 담긴 모든 고난과 실패가 인간의 얼굴에, 아니 차라리 인간의 두개골에 표현된다. 자유의 관념이나 고전적인 균형, 인간의 감정 같은 것은 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간존재와 개별 인간의 운명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죽어야 할 운명의 징표 속에 상징되어 있다. 이것이 알레고리적 시각의 핵심이며, 또한 역사를 세계의 고난으로 보는 바로크적 역사관의 핵심이다. 역사는 역사가 타락한 경우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미라는 것

18) 김영옥, 「벤야민의 문예이론과 알레고리 개념」,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석사논문, 1985, 35면.

19) 문봉호, 204면.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3, 204면.

은 죽어야 할 운명의 기능이다. -왜냐하면 타락성으로부터 의미성으로의 이행을 나타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기 때문이다.²⁰⁾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사고는 “고전적 균형이나 자유의 관념”이 상실되어 버린 현대 문학작품의 알레고리적 이미지에서 고난과 실패로 점철된 고통스런 인류역사의 엄청난 축소판을 읽어내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역사의 일그러진 재난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인류의 원초적·신화적 이미지도 담겨 있다. 그에 의하면 개체적 인간의 원초적 의식 속에서 발견되는 고대와 현대의 통시적 경험 간의 공간구속적 교감을 통해 도달되는 집단 무의식 세계 속에는 신화적 시대로부터 나오는 인류의 영원한 소망의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 소망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인류전사(人類前史)의 원초적 경험을 통하여 현재의 시대는 초월적으로 유토피아적 진리와 결합된다²¹⁾는 것이다. 그러니까 벤야민에게 있어서 모더니즘 문학에 나타나는 현대적 이미지는 인류의 좌절과 고통,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 세계의 마물화(魔物化)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를 극복하려는 집단 무의식적 동경과 소망도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융의 ‘원형이론’과 프로이트의 ‘인류의 원초적 유산’을 연상시키는 벤야민의 이러한 신화적·유토피아적 역사관은, 자신의 문헌 유년기의 원초적 경험과 과편화된 역사의 본질적 원형을 구극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자아 찾기’와 ‘죽은 역사 살리기’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는 『서유기』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고고학적 노고의 의미를 한층 증폭시켜 준다.

3. 탐구 방법의 두 층위

3.1. 개체 발생적 층위의 탐구 서사

20) Georg Lukács, 황석천 역, 『현대 리얼리즘론』, 열음사, 1986, 42면에서 재인용.

21) Walter Benjamin,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0, 383면 참조.

『서유기』에서 주인공 독고준이 벌이는 환상의 여행은 “고대인의 두개골 화석의 대뇌피질부”(5면)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의 천착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시간은 물리적 시간 개념의 객관적 메커니즘을, 즉 비가역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과거를 탐구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런데 독고준의 사고 과정이 환상적 상념의 여행기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국의 화석의 일반적 특징인 황폐성과 무질서성”으로 비유되듯이, 그 여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로테스크하고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부조리한 난립상을 형성함으로써, 이 작품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정한 스토리, 그리고 이 스토리를 일정한 맥락하에서 전개해나가는 합리적인 짜임새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작가는 지극히 반사실주의적이고 환상적인 이 작품의 표면적 혼란성에 구조적 안정을 부여하고 나아가 자아 찾기 모티프와 관련하여 내재적 의미를 형성하기 위하여 널리 알려진 중국 고대소설 『서유기』의 로망스 양식의 틀을 이용하고 있다. 원본 『서유기』는 전형적인 로맨스(romance)로서, 현장 일행의 끊임없는 모험과 괴기담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고 가는 지속적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행 구조 자체가 일종의 소망 충족을 향한 무의식의 여로이기도 함으로써 자아 구원을 꿈꾸는 집단적 잠재의식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품이기도 하다.²²⁾

최인훈의 『서유기』가 고전 『서유기』에서 패러디해온 것은 단순한 로맨스적 모험의 형식이라기보다도 편력 과정 심층에 퇴적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적 소망이 만들어낸 의미 구조인 것이다. 이 의미 구조를 심층에 깔고 소설은 환상적 상념의 여행에 편승하여 현실의 시공에서는 찾을 수 없는 W시에서의 유년기의 기억 속으로 독고준을 이끌어가게 된다.

독고준은 이유영의 방을 나와 계단을 올라 마지막 끝에 다다랐을 때, 느닷없이 나타난 다섯 사람에 의해 체포당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환상 속의 모험이 시작된다. 그런데 독고준은 체포되어 알 수 없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오물이 썩는 싸아한 냄새”(11면)에 여러 번 향수를 느끼게 되는데, 이 후각

22) Gillian Beer, 위의 책, 78면 참조.

이 불리일으키는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에 대한 희미한 무의지적 기억은 곧이어 익명의 전언을 통해 점차 구체적인 이미지로 부각된다. 복도에서 지반이 꺼지면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낯선 방안에 갇힌 독고민은 발밑에 떨어져 있는 신문지의 광고란에서 자신을 찾는 글귀를 발견하고 회상의 문을 연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 여름날에 우리가 더불어 받았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하여,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당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랬었구나, 하고 그는 기쁨에 숨이 막히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이 광고를 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라구. 아무렴, 그는 너무나 벅차서 눈을 지긋이 감았다. 폭음 소리가 들려온다. W시의 그 여름 하늘을 은빛 날개를 번쩍이면서 유유히 날아가는 강철 새들의 그 깃 소리가. 태양도 그때처럼 이글거렸다. 둥근 백금의 허무처럼. 기체의 배에서 쏟아져 내리는 강철의 가지, 가지, 가지. 그곳으로 독고준은 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소집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식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호주머니에는 그의 영혼처럼 어린 그러나 순수한 풋실과를 넣고 그는 가고 있었다. (...) 그의 운명을 만나기 위하여 (...) 나의 운명을 만난 날, 폭음의 여름, 저 강철의 새들이 잔인한 계절의 장막을 열고 도시의 하늘에 날아온 그날을. 오,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의 생애의 자북(磁北)을 알리던 그 바늘의 와들거림을 나는 생각한다. (...) 그녀가 그를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것은 독고준의 생애의 의미였다. 그때 그는 그녀가 자기의 운명인지 몰랐다. (『서유기』, 13-15면)

작품 첫머리에서부터 “그 여름날의 폭음”이 갖는 의미는 강하게 드러난다. 그날은 독고준이 운명을 만난 날이며 그의 최초의 운명과의 만남을 “자북을 알리던 바늘의 와들거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독고준은 자신을 찾는 신문 광고를 품은 가슴 근처에 겨울에 불똥을 품었을 때처럼 훈훈한 기운을 느낀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전언이 불리일으킨, 폭음 소리와 더불어 회상되는 W시에서의 여름날의 풍경은 과거 유년 시절 독고준의 어리고 순수한 영혼이 만난 최초의 운명과 같은 ‘충격 체험’이며,

근원적인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의 생애를 결정한 일대의 사건이 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기』의 모험은 독고준이 현실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과거의, 운명과 같은 어떤 경험에 대한 기억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중반부를 넘어가기 전까지 그의 운명을 결정할 기억의 원형이 어떤 것이며 무엇이 그의 “생애의 자북(磁北)”을 울렸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기억은 “오물이 썩는 싸아한 냄새”가 이끌어가는 모종의 후각적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등근 백금의 허무처럼” “이글거리는 태양”과 태양 광선에 “은빛 날개를 번쩍”이는 “강철의 새들”로 비유되고 있는 폭격기의 잔상이 폭음과 함께 만들어놓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첩된 숨막히는 세계를 반복하여 떠올리고는 있지만, 기억 속의 원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형상 및 의미는 “W시의 그 여름날의 폭음”이라는 추상적인 표현 속에 아직 숨겨져 있고 독고민 자체도 그 기억의 원형을 명확하게 집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억의 주체인 주인공이 그것의 근본 뿌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유기』의 서사 구조는 완결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며, 무의식의 진실이 묻혀있는 유년기의 세계를 탐구하는 시간의 역전적 소급 여행 자체가 일종의 정신분석적 탐구의 알레고리로 읽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서두에서 비유한 고고학적 탐구와 명백한 유사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²³⁾

『서유기』의 독고준에게 있어서 억압되었던 유년기의 무의식의 기억은 “나의 여름”이라는 추상적 ‘재현 표상’인 상징적 기표로서 부각되며, 그의 여행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기억의 회복을 저지하려고 극성을 부릴 때마다 새롭게 그를 구출하여 이끌어가는 내면적 견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독고준의 여행이 진행됨에 따라 서사 구조 속에서 서서히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기억의 원형을 추적해보면 그 끝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의 풍경이 드러난다.

그는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그 여름날을 생각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 기억들의 맨 끝자리에 떠오르는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깊은 밤에 비행기 지나는 소리가 우렁우렁 들려오면 그는 그 여름날 철로 위에 들어서는 것이었다. 역장은 그

23) 고고학과 정신분석의 유사성에 관해서는, Elizabeth Wright, 권택영 역, 『정신분석 비평』, 문예출판사, 1991, 44-48면 참조.

를 말리고 있었다. (...) 여름 햇볕에 반짝이는 두 가닥 레일 사이로 침목을 밟으며 그는 걸어가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달려가고 있었다. 눈개는 남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촛불을 켜놓은 방과후의 교실에서 그는 자아비판을 하고 있었다. (...) 소년단 지도원 선생에게 다시는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포탄이 쏟아지는 거리로 수십리 길을 걸어온 용감한 소년이었다. (...) 그는 어느 집 꽃밭을 보고 있었다. 꽃들은 아름다웠다. 요란한 폭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달려나왔다. 손을 잡고 뚫다. 반공호 속은 숨이 막힐 듯하다. 강철의 날개가 공기를 찢는 소리가 들리고 쿵, 하고 땅이 울린다. 그러자 바로 머리 위에서 굉장한 소리가 나면서 그에게로 무너져 오는 살냄새와 그리고 머리칼. (「서유기」, 220면)

독고준의 여행이 진행되면서 막연하게 떠올랐던 과거의 이미지들은, 반복되는 기억의 소급작용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구체적인 사건 혹은 상황을 향하여 수렴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그 수렴되는 곳에 진정한 외상과 함께 뒤엉켜 있는 콤플렉스의 고착점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서사의 진행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 여름날”의 비밀은 최초의 성(性)의 경험이며, 이것은 독고준에게 있어서 죽음을 앞에 둔 공포 속에서 일어난 원초적인 경험으로서의 충격 체험에 해당한다. 머리 위에서는 곧바로 죽음을 예고하는 폭격의 공포스런 뇌음(雷音)이 진동하는 가운데 반공호의 어둠 속에서 느꼈던 성애적인 경험이란, 죽음과 사랑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감정의 가치 영역이 충격적인 결합을 이루는 가운데서 감수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내면에 커다란 양가적 심리구조의 원형적 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 두 가지 감정의 결합 상태가 독고준의 정신 구조에 외상을 안겨줄 수 있는 근거는 에로스(Eros)라는 삶의 본능과 타나토스(Thanatos)라는 죽음의 본능이 인간 존재에 내재하는 두개의 상반된 기본적인 본능²⁴⁾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 두 개의 본능이 동시에 결합될 때 일어나는 치명적인 갈등은 리비도의 흐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죽음의 본능’이라는 것은 삶의 본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는커녕 모든 이미지들을 죽음의 표현으로 기울게 하는 충동과 체념의 한가

24) Herbert Marcuse, 김인환 역, 『에로스 와 문명』, 나남, 1989, 37면.

운데에서도 죽음이 부정되고 영속적인 삶의 극한까지 완곡화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심리적 가설이 존재한다. 즉 죽음을 하나의 휴식, 하나의 잠으로 갈망하고 상상한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에 죽음을 완곡화하고 죽음을 상징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생겨나게 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이 두 본능 개념의 분화보다 그 공통된 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듯이 “외부 세력의 방해력이 거세질수록, 살아 있는 존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행복한 초기 상태를 회복하려는 유기체의 생명에 고유한 충동” 속에서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은 하나로 통합되어 열반원칙에 봉사하게 되고”²⁵⁾, 급기야 에로스 와 죽음의 본능이라는 반대 명제가 공통된 근원에서 출발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면, 결국 에로스는 죽음의 본능까지 포함하여 모든 삶을 보존하는 위대한 통합력으로서 상징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이때 에로스에 내재하는 상징의 힘은 죽음의 인식에 의해 더럽혀진 훼손된 삶에 대한 균형의 회복으로 나타난다.²⁶⁾ 독고준은 자신의 무의지적 기억이 인도하는 유년기의 탐구를 행한 끝에 리비도가 고착된 최초의 외상적 사건의 근거로 다가가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원초적 경험 속에 침잠된 죽음과 삶의 존재론적 의미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을 구원해준 에로스의 원형, 즉 모성적 여성의 원형 또한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초적 경험은 당시의 독고준의 영혼에 고통을 행사한 외부적 억압력에 대한 경험이자 동시에 자신을 구원한 사랑에 대한 깊은 기억이기도 하다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서 사랑에 대한 기억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은 외상의 근거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현실의 비인간적 부조리성에 대한 또 다른 아픈 기억이 그를 괴롭히고 있음으로 해서 그렇다. 그가 유년기에 논개와 이순신을 숭상하다가 지도원 선생에게 소부르조아로 낙인찍혀 자아비판을 받았던 기억과, 그러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공포심 때문에 폭격에도 불구하고 소집명령을 고지식하게 믿고 텅빈 거리를 지나 학교로 갔으나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던 악몽 같은 경험이 회상의 뿌리 주변에 잠복한 채 어두운 동굴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여름”은 독고준의 “목숨”이며,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여름”이기도 하지만, 그의 “일생을 망

25) 위의 책, 37-38면.

26) Gilbert Durand, 진형준 역, 『상징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4, 128면.

쳐버린”, 치명적인 “여름”이기도 한 것이다.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인격 없는 사회의 폭력적 억압력과 죽음이 내리쏟아지는 전쟁의 상황에서 어린 소년이 파고들었던 에로스의 체온은 가히 신(神)적인 구원의 온도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연유로 독고준의 심처에 숨어 있는 ‘여인의 체취’는 죽음과 이데올로기적 폭압력이 만연되어 있는 외부 세계가 어린 존재의 영혼에 행사한 외상의 깊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체험한 에로스는 인생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핵으로 기능하며, 생명체의 근원적 핵 속에 내재된 이율배반적인 본질 특성 때문에 독고민을 구원했던 최초의 성적 황홀감은 “폭음”이라는 파괴적 기표 속에 수수께끼처럼 은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무의식의 내용이 억압되면서 환유적 기호 변환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여름의 폭음”이라는 재현 표상은 그것이 만들어진 환치적(換置的) 원리에 근거해서 기표 형성 과정을 소급하여 여러 번 의미를 변환시켜야 비로소 무의식에 내재된 원초적 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과정이야말로 고고학적 방법론과 일치되는 것이며, 독고준의 자아 찾기 여행이 진행되는 서사 세계의 진정한 의미 구조와 맞물리는 것이다.

3.2. 계통 발생적 층위의 탐구 서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의식에 묻혀 있는 진실을 탐구하는 독고준의 개인적 정신 편력의 과정 속에 출몰하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에 있다.

독고준은 W시로의 자신의 유년기를 찾아가는 상념의 여행 도중 여러 가지 장애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장애가 의인화된 존재들은 ‘일제시대의 헌병’으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간호원’, 문화형을 연구하는 ‘사학자’, W시로 가는 기차역을 지키고 있는 ‘역장’, 그리고 한국 근세사의 파란만장한 상흔 속에서 뚜렷이 기억되는 역사적 인물들인 논개, 이순신, 이광수, 조봉암 등으로 등장된다. 가는 곳마다 차례로 이들과 만나는 독고준은 때로는 민족의 이름을 빌어, 때로는 역사의 의미를 앞세워, 때로는 인간의 정으로 호소하여 그의 여행

을 지연시키거나 종료시키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제안 및 의지를 물리치고 오직 “그 여름날의 폭음”이 환기시키는 기억의 장소를 향하여 발길을 재촉한다. 임란 당시의 조선시대로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광복 후 이데올로기의 혼란상으로 이어지는 상처 입은 역사의 시대적 고비들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통해 한국 근세사의 어두운 내면 풍경을 만나고 있는 독고준이 어떤 시대의 한시적 의미에도 안주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독고준이 타인의 구원이 자기의 구원보다 선행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암암리에 실토하는 전형적인 예고의 분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²⁷⁾이라기보다는 독고준의 개인적 자아 찾기 과정 자체가 포함하는 메타포적 의미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시대사적 특수성 속에서 개인이 겪는 자아 분열적 고통은 그러한 환경을 만든 역사적 사건들의 연쇄 속에서 선조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통시적 연맥 관계에 놓여 있을 뿐더러, 과거와 현대간의 집단 무의식적 교감을 통해 개체적 현실 반응의 심층 속에 역사적 외상이 무의식적으로 알레고리화되어 있다는 구조 발생론적 집단 심리학에 연결됨으로써 가능하다. 때문에, 현시대의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있는 개인의 자아 찾기 과정 자체가 역사적 과거와의 맥락을 떠나서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 여름날의 폭음”을 찾아가는 독고준의 여행에서 그가 여러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떠나가고 있는 현상은, 바로 독고준의 상념 여행이 개인의 억압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정신분석적 편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국의 근세사의 재난적 시대를 살던 지식인의 전형적 정신 구조와 한국의 본질적인 ‘문화형’의 원형질을 찾아 방황하는 고고학적 역사탐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간 존재가 숙명적으로 직면하는 억압된 정신의 발달 과정에 관한 프로이트의 분석은, 유아기로부터 의식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개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 발생한 개체 발생적 외상을, 원시 부족으로부터 완전히 제도화된 문명 상태로 진행되는 억압된 인류의 문명화 과정에서 발생한 계통 발생적 외상의 경험과 구조적으로 상응시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현실과의 접촉

27) 송재영, 「분단시대의 문학적 방법」, 『최인훈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85, 327면.

에서 발생하는 유년기의 외상적 경험은 본질적으로 전(前)개인적인 것이며 종(種)적인 울림을 갖고 있는 것이다.²⁸⁾ 그러므로 개체 발생적 차원에서 유년기가 개인이 자기 충족적인 세계를 잃고 현실 세계의 억압적 원리에 편입되는 고통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문명사적 차원에서 현대란 집단이 인간과 자연의 시원적 총체성을 잃고 자연 지배와 인간 지배로 점철된 도구적 합리성의 세계로 치환되는 위기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서유기』에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위기적 경험이 아날로지를 형성하며 마주친 시공간적 교착 지점이 바로 6.25라는 재난의 지평이며, 주인공 독고준이 트라우마가 고착된 지점을 향해 움직이는 편력의 서사 구조는 개인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충족된 세계에서 상징적 현실 체계로 뜯겨져 나간 결핍된 자아의 욕망이 은유적 연쇄에 따라 리비도를 충족시킬 대상을 회구하는 것처럼, 불현듯 총체성이 붕괴된 역사적 재난의 시대에 현대성이라는 수수께끼에 싸여 실체를 상실한 정신적·문화적 정체성을 추상적 언어를 통해 현현해 내려는 지난한 탐구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서유기』에서 독고준이 벌이고 있는 고고학적 탐구 행위는 개인적 공간과 역사적 공간이라는 ‘양면적’ 세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개인의 억압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외상의 근저를 인식하는 정신분석적 치료 행위 속에 왜곡된 역사의 기원을 거슬러 본질적인 모순의 근저를 파헤치려고 하는, ‘역사 되살리기’의 행위가 알레고리적으로 겹쳐져 있는 형국을 이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치 불법을 얻기 위해 삼계를 여행하는 원전 『서유기』의 주인공처럼, 역사를 관류하며 역사 속에서 사멸해간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과 관념적 대화를 교환하는 가운데 독고준은 임란 당시 조선의 역사적 시공으로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직후의 시대상으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관념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이것이 현실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6.25 당시 W시로의 소급적 회상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독고준의 실제적 시간 추이와는 역방향에서 진행되어 역시 6.25의 역사적 지평을 향해

28) Herbert Marcuse, 앞의 책, 59-60면 참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독고준이 W시에 도착했을 때, 역사적 대과거와 현재의 현실에서 출발한 양 방향의 시간 여행은 ‘6.25 당시의 W시’라는 특정한 역사·사회적 시공 속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 여름날의 폭음”과 관련된 독고준의 원초적 경험 속에, 상징적으로, 현재와 역사적 대과거가 만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 때문에 독고준의 “그 여름”으로 향한 갈망은 그의 원초적 경험 속에 존재하는 절박하고 순수한 감각으로의 회귀에 대한 열망이면서 동시에 수난과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의 연쇄 고리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한국인의 문화사적 정신 원형의 추구인 것이다. 이러한 연고로 죽음과 구원의 이미지가 결합된 여름날의 충격 체험의 심연에는 붕괴된 한국 역사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근원적 질서에 대한 무의식적 소망의 신화적 상상력과 함께 알레고리적으로 되비치고 있는 것이다.

독고준에 대하여 그녀는 원형이었다. (...) 그것은 항상 은은하게 울리는 폭음과 숨막히는 무더운 공기를 생생하게 되살려주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점도 그를 만족시켰다. (...) 그 여름날은, 그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성지(聖地)였다. 순례의 길에서 본 수많은 여자를 그 성지의 여신상과 비교할 때, 그것들은 어림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등록이 된 신인가 아닌가에 차이는 있을망정, 그 사람의 얼을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한에서 그것은 신이다.²⁹⁾

독고준에게 있어서 원초적 경험의 원형이 되는 구원의 존재인 ‘여인’은 신과 같은 존재, 즉 그의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다. 이를 하나의 메타포로 볼 때, ‘여인’은 독고준 한 개인의 신(神)일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³⁰⁾ 이렇게 함으로써 고고학적 방법론은 개인의 유년기 및 역사의 기층에 묻혀 있는 숨은 의미를 기표의 분석에 의해 추적하고 해석하는 환원적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의미를 본의에서 확장시켜 ‘재신화화’³¹⁾

29) 최인훈, 『회색인-최인훈전집 2』, 문학과 지성사, 156면.

30) 이인숙, 「최인훈의 ‘서유기’, 그 패러디의 구조와 의미」, 『美原 우인섭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美原 우인섭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집문당, 1986, 517면.

31) ‘재신화화(remythisation)’란 모든 의미들의 반복 속에서 모아지고 수확된 의미들

하여, 의미 형상(figure)이 지닌 형상화(figuration)의 능력에 의해 개인의 영혼이 역사적 집단의 심리 현상과 연결되는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심리 사회학적 균형 회복을 위한 보다 높은 층위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서유기』에서 고고학적 방법은 두 수준에서 해석학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해 보인다. 먼저 개인의 심층에 공포스럽게 알레고리화되어 묻혀 있는 역사적 과거의 왜곡된 의미상을 발굴하여 부정적으로 신화화된 경험적 세계의 파괴적 폭력성과 부조리성의 역사를 고발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이 작업을 통해서 추적된 원초적 경험의 이미지를 집단 무의식적 소망으로 재신화하여 왜곡된 역사와 삶을 회복시키려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고고학적 방법론 내지 사유 방식은 단순한 해석학적 기술의 차원을 넘어 작가의 예술관 및 세계관, 또는 역사 철학적 사고와 관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된다.

을, 그 의미를 의식의 존재 자체를 구성하는 신의 현현으로까지 목상하여 갑자기 경험되는 새로운 의미와 재결합시키는 해석학적 방법을 말한다. P. 리코르는 해석학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고고학적인(archéologique) 방법’으로서 전기적이고 사회적인, 심지어 계통발생적인 과거에 몰입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eschatologique)인 것’으로서, 인류전사(前史)의 근원적 질서에 대한 ‘무의식적 추억의 재현(réminiscence)’을 통해 영혼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이다. 리코르가 의미하는 재신화화란 바로 두 번째의 해석학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필자는 리코르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 수준의 해석학적 방법론이 ‘고고학적 해석방법’ 속에 포괄된다는 입장에서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리코르가 고고학적인 방법을 지나치게 정신분석적 환원주의와 일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있으며, 또한 고고학적 방법을 통해 해석된 문학작품 속의 알레고리는 단순히 의미제약적인 일의적 지시기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원초적·신화적 이미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미 벤야민은 붕괴된 인류역사의 축도가 알레고리화되어 묻혀 있는 문학작품의 이미지 속에는 인류의 원초적 신화적 이미지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간파한 바 있다. 또한 고고학적 방법을 정신분석적 치료방법과 교묘히 중첩시켜 예센의 소설 『그라디바』를 분석했던 바 있는 프로이트조차도 고고학적 방법을 단순한 유물 발굴작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과거를 현재처럼 살아 있는 것으로 믿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가장 흥미진진한 현대적인 것들을 생생한 과거와 비유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문화 속에 감추어진 신화적 환상의 역사적 진실을 구명하려 하였다. Gilbert Durand, 앞의 책, 120-121면 참조.

그러나 ‘고고학적 상상력’을 통해 서사 구조 속에서 죽은 역사를 회복시키려는 이와 같은 추구는 관찰되지 못하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는다. 『서유기』의 결말 부분에서 드디어 W시에 도착한 다음에도 독고준은 자신을 찾는다는, 익명의 여자로부터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받고, 반복해서 “그 여름날”의 풍경을 회상 속에서 반추할 수 있을 뿐, 여전히 궁극적인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와 역사적 과거와의 공시적 대응 형식을 통한 알레고리적 글쓰기로써 집단적 자아의 본질을 탐구하여 뒤틀린 삶의 역사를 복원하려던 최인훈의 지난한 시도는 독고준의 원점 회귀와 함께 실패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영혼의 핵심부를 올려줄 신화의 원형을 찾기 위해 한국의 근세사를 더듬거려왔던 ‘고고학적 상상력’의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역사 속에 더 깊이 매몰되어 있는 정신의 근원지를 지향하여 또 다른 방식의 여행을 준비한다. 그리하여 희곡 장르를 통한 민족의 ‘집단무의식의 원상 세계’를 탐구하는, 최인훈 문학의 새로운, 그러나 불굴의 시도로 이어지게 된다.

5. 상징적 상상력을 위하여

『서유기』를 추동하는 텍스트 생성 원리는 두 가지의 층위에서 발견된다. 하나는 작가의 예술관내지 역사 철학적인 사유와 관련된 소설 양식상의 층위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양식을 운용하는 방법론상의 층위이다. 이처럼 작품을 구조화하고 있는 원형적 양식과 구성 방법을 바탕으로 『서유기』의 세계를 통찰한다면, 한 마디로 ‘로만스(romance)적 양식을 원형으로 삼고,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구성 원리로 하고 있는 탐구적 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인훈은 『서유기』에서 로만스 양식의 탐구적 환몽 구조와 꿈의 메커니즘을 형식적인 원리로 이용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 이중의 의미 구조를 발견해 낸다. 한 가지 방향은 소설 속에서 소망의 도달할 길 없는 난맥상이 개인 심리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개체 발생적 피억압구조'이고, 또 다른 방향은 이러한 개인의 무의식적 심리 구조가 기표가 되어 사회적 심리 구조 속에 끼워 넣

어짐으로써 보편적·역사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계통 발생적 피억압구조'이다.

이러한 피억압구조 속에 퇴적되어 있는 붕괴와 수난의 과정인 역사의 파편화된 혼란상을 발굴하여 이를 해독해서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고고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명명하고 있거니와, 최인훈은 분열된 개체의 자아 찾기 편력을 통해 붕괴된 역사의 지층에서 발견된 집단 무의식의 억압된 소망을 동시에 충족시켜 보려는 시도를 환상적 추상 소설 양식 속에서 알레고리적 사유와 형식을 통해 진행하였다.

특히 『가면고』를 거쳐 『구운몽』과 『서유기』로 심화되는 반사실주의적 소설 속에서 진행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허물기', '현재와 역사적 과거의 경계 허물기', '개체적 자아와 계통 발생적 집단심리의 경계 허물기' 등의 의도 및 기법은, 일반적으로는, 패러디 양식에 내재된 아이러니와 역설의 수사학적 원리를 형식적 기반으로 하고, 특수하게는 전기소설의 로망스적 환상 세계와 실제 현실 세계의 역설적 아날로지에서 비롯된 알레고리적 의미 구조를 기능적 기반으로 하여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의도는, 작품 세계를, 개인의 억압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외상의 근저를 인식하는 정신분석학적 치료 행위 속에 왜곡된 역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모순의 근저를 파헤치려고 하는 '고고학적 탐구 행위'가 알레고리적으로 겹쳐져 있는 형국을 이루게 한다. 이 '고고학적 탐구'는 해석학적 차원을 넘어 '고고학적 세계관'으로 확장 심화된다. 이때 고고학적 세계관의 궁극적 의미 기능은 역사적 과거의 왜곡된 의미상을 발굴하여 부정적으로 합리화된 경험 세계가 은폐한 인간 상실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통해서 추적된 원초적 경험의 이미지를 집단무의식적 소망으로 재신화하여 왜곡된 역사와 삶을 회복시키려는 것으로 드러난다.

본고 4장에서 고고학적 탐구 방법이 작용하고 있는 최인훈의 알레고리적 소설 세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면서, 결국 '신화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주인공의 궁극적 의식의 지평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한 바 있다. 이는 고고학적 탐구 방법이 상징적 상상력으로 작용하여 민족의 신화적 원형의 구심력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최인훈 소설 미학의 전망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민족의 신화적 원형 세계까지를 예술적

으로 포착하여 표현해 내려던 최인훈의 소설적 시도는, 쉬지 않고 변주되는 주제적 진리의 탐구 과정 자체가 보여주고 있듯이, 지난한 방법론적 모색의 노력으로도 도달하기 어려운 것임이 매번 증명되었던 것이다. 신화적 세계의 상징적 통일성을 소설적 양식을 통해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붕괴된 역사의 진행과 함께 상실된 문화적 공감대의 토양을 복원시켜야 하는 비문학적 작업이 전제되어야 했기에 더더욱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작가 자신이 고백했듯이 “시민으로서의 양식을 자기 예술 안에서 매번 증명해야 할 객관적 이유와 강박을 느끼기” 때문에 일종의 필요악으로 소설 창작에 따라 다녀야 했던 전(前)예술적 군더더기가 그의 예술적 목표에 대한 “본질적 해결”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이다.³²⁾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르의 변경은, 앞에서 논의한 두 가지 수준의 고고학적 방법 중, 즉 개인의 심층에 알레고리화되어 묻혀 있는 역사적 과거의 왜곡된 의미상을 발굴하는 작업과, 또한 이 작업의 끝에서 암시된 원초적 경험의 이미지를 민족의 집단무의식적 소망으로까지 거슬러 올려 역사와 삶을 회복시키려는 작업의 두 가지 층위 중, 후자의 것을 발전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거시적 방법론의 발견임은 말할 것도 없다.

현실적 세계와 환상적 세계가 병치되어 알레고리적 형식의 매개로 상호 관련성을 유지해오던 이원적인 소설세계가 회곡 장르로 넘어와서 신화적 세계의 원초적 질서 속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최인훈 문학의 ‘고고학적 상상력’은 비로서 ‘상징적 상상력’³³⁾으로 확대·발전되어 간다.

『서유기』는 최인훈 문학의 예술관과 역사 철학적 소망이 달성할 수 있도록 미학적 바탕을 마련해 준 소설 장르상의 최종 모델이 된다. 비록 황폐하고 무질서한 삶과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적 표현과 비판적 분석에 몰두하여 상징적

32) 최인훈, 『최인훈전집 12』, 416면 참조.

33) ‘상징적 상상력’을 “심리사회학적 균형 잡기의 기능”으로 파악하고 있는 질베르뒤랑(Gilbert Durand)은 “상징은 하나의 균형을 취하는 종합으로, 그 종합을 통해 개인의 영혼이 인류의 심리 현상과 연결되며, 인류의 지성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Gilbert Durand, 앞의 책, 131면).

상상력을 통한 화해와 균형의 미학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 개인의 개체적 정신 구조 속에서 특정 시대의 사회 현실의 혼미상을 발견해 내고 또한 당대의 사회 현실의 혼미상에서 현대의 상황 일반, 나아가 한국 역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를 해석해 내는 작업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심리적 주체가 사회적·역사적 주체를 만나는 계기³⁴⁾를 마련해 줌으로써 ‘개인의 특수한 예술 형식 속에 보편적 역사의 의미가 퇴적되어 있다’는 모더니즘 예술 이론의 요체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거의 시대와 현재의 시대의 끊임없는 변증법적 교호 작용을 통해 알레고리적으로 이끌어낸 인간과 역사적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평이야말로 최인훈의 고고학적 상상력이 성취해낸 현대 소설적 가치가 될 것이다.

34) Thodor Adorno, 방대원 역, 『미적이론 I』, 이론과 실천, 1991, 107면 참조. 아도르노는 개인의 특수한 예술형식 속에 보편적 역사의 의미가 퇴적되어 있다는 것을 예술이론의 기초로 삼고 있다. “예술에서 보이는 모든 개성적인 성벽은, 미메시스적 계기, 그리고 개별적인 것에 앞서서 존재하는 계기에 힘입어, 자신이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내부에 집단적 힘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힘을 근거로 하여 유지된다.”

[ABSTRACT]

The Archaeological Researching Narration and the Allegory of the
Historical Philosophy

-A Study on the Text Creation Principle of Choi In-hoon's novel 「Seoyougee」

Kim, JungKwan

This thesis proposes on reconsidering the status and value of Choi In-hoon's novel 「Seoyougee」 within history of literature by enunciating the function and meaning of 'the archaeological researching narration' and 'the allegory form' in this work.

「Seoyougee」 is the anti-realistic novel which digs into the intellectual historical meaning through the allegorical form-technique, which is buried under deep place of the individual and history based on the enquiring wraithen-dream structure of the romance styl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archaeological research that drives the narration of the novel excavate the distorted meaning shape which is laid under the individual's deep layer, remythologize the image of the basic experience that is discovered at the end point of this work with people's group unconscious wish, and embrace the symbolic fiction esthetics which intends to recover the mutilated history and life.

The new perceptual prospect on the human and historic life that is extracted allegorically through the dialectic reciprocal action between individual dimension and historical dimension and the bygone ages and modern times, will be guaranteed to be the worth of the modern novel which the archaeological imagination of the 「Seoyougee」 has accomplished.

Key Words: archaeological researching, allegory, Historical Philosophy, original experience, representational symbol, structure of fantastic dream, symbolic imagination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최인훈, 『광장/구운몽-최인훈 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86.
최인훈, 『서유기-최인훈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85.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최인훈 전집 12』, 문학과 지성사, 1994,

□ 단행본

- 문봉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3, 127-248면.
이원양, 『브레이크 연구』, 두레, 1984, 105면.
Elizabeth Wright, 권택영 역, 『정신분석비평』, 문예출판사, 1991, 44-48면.
Georg Lukács,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철당, 1985, 70-88면.
Georg Lukács, 황석천 역, 『현대 리얼리즘론』, 열음사, 1986, 18-46면.
Gilbert Durand, 진형준 역, 『상징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4, 120-131면
Gillian Beer, 문우상 역, 『로망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70-78면.
Herbert Marcuse, 김인환 역, 『에로스과 문명』, 나남, 1989, 35-75면.
Northrop Frye,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260-368면.
Sigmund Freud, 정장진 역, 『빌헬름 예젠의 ‘그라디바’에 나타난 망상과 꿈』,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6, 210-239면.
Thodor Adorno, 방대원 역, 『미적이론 I』, 이론과 실천, 1991, 120-123면.
Walter Benjamin,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0, 357-388면.

□ 논문 및 평론

- 김정관, 「이상과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욕망 형식 연구」, 『국제언어문학』 제26호, 국제언어문학회, 2012, 103-131면.
길경숙, 「최인훈의 ‘서유기’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7-82면.
문지현, 「최인훈 소설의 미적 근대성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22-62면.
설혜원, 「최인훈의 몽유 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81-135면.
송재영, 「분단시대의 문학적 방법」, 『최인훈 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85, 324-334면.
윤대석, 「최인훈 소설의 정신분화학적 읽기」, 『한국학 연구』 제1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73-192면.

함돈균, 「최인훈 '서유기'의 다성성과 아이러니 연구」, 『국제어문』 제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307-336면.

황순제, 「최인훈 소설의 환상기법 양상과 표현적 효과」, 『문학과 비평』, 1989. 겨울호, 335-355면.

이 논문은 2016년 11월 4일 접수되어 12월 6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

